

미국 마감 상황

2009.01.06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5일 뉴욕증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 7,75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물과 기업실적 우려로 인하여 하락 마감.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81.80p(0.91%) 하락한 8,952.89에 장을 마감. 22종목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JP 모건이 6.75% 하락.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 6.2% 하락 마감.

S&P500 지수는 전장대비 4.35p(0.47%) 떨어진 927.45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8p(0.26%) 떨어진 1,628.03을 기록.

지난 11월 건축지출은 전월대비 0.6% 감소하여 블룸버그 예상치인 1.4% 감소보다 양호한 수치를 나타냄.

12월 GM과 포드의 자동차 판매가 각각 31%, 32.4% 급감하였으나 예상치 보다 양호하다는 인식에 GM의 주가가 2% 포드는 4%대의 상승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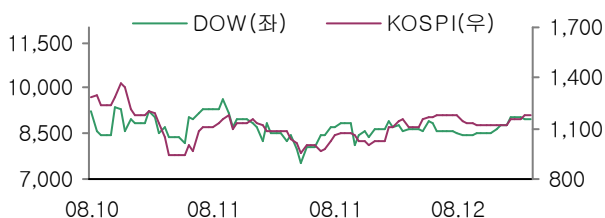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약세를 나타냄.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주대비 2.47달러(5.3%) 오른 48.81달러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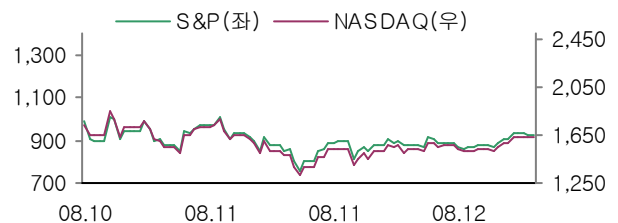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서며 주가가 4% 넘게 상승.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952.89	-0.91	5.53	5.08	3.68	-13.29	-30.06
S&P(좌)	927.45	-0.47	6.67	6.40	5.86	-15.63	-34.30
NASDAQ(우)	1,628.03	-0.26	7.79	6.24	7.87	-16.40	-35.00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